



충남의회보

제 204회~제206회 임시회(제26호)

의 정 방 향

- 도민의 뜻을 실현하는 「민익의 전당」 구현
- 연구·개발·지원하는 「정책의 전당」 구현
-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민주의 전당」 구현

▶발행인 : 충청남도의회위원장 ▶편집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TEL.042-606-5045/FAX.042-606-5049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발행일 : 2007년 6월 30일

행복도시, 기초자치단체로 출발해야

- 충청도의회, 정당한 논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 선언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서(요지)

1. 입법의 절차와 시기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한 정부입법의 즉각 중단 및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올바른 국책 사업 추진을 촉구함.

● 행정도시 기본계획상의 「2011년 말까지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을 설정한다」는 고시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 예고를 앞당겨 시행한 것은 명백한 입법절차의 하자임.

● 2010년에 시행될 법률을 3년이나 앞당겨 제정하고자 하면서 행정도시의 외형틀만 졸속으로 만들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움.

2. 입법예고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함.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여러 개의 중앙행정관청들이 입주해 있는 과천시나 대전광역시 등의 둔산지구와 같은 행정도시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그 인구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상의 도·농복합특례시 정도의 법적지위 부여가 적절함에도, 도 및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같은 '상급자치단체'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는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로 할 경우에는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지역 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을 관할대상으로 함으로써 「섬」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사실상 주변지역의 산업구조가 도시화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도농복합적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임. 즉, 광역-기초 통합의 단층제 자치단체보다는 예정지역 전체가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중심형으로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통합·처리하도록 하고, 향후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구등하부 행정구역을 두면 될 것이며 도시화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로 발전할 경우 지역적 특성의 변천에 따른 법적 지위를 달리 부여하면 될 것임.

3. 행정중심복합도시시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맞는 특례적 지위를 가진 도·농통합시 형태의 지위를 요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도농통합시의 지위로 할 경우 도시와 촌락을 통합한 도·농복합 도시체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간기능을 결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4.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사용에 대해 반대하며, 새로운 명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함.

● 입법여부에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명칭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임.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관할구역을 반대하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을 설정할 것을 요구함.

●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여론을 보면 연기군은 잔여지역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흡수통합을,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은 주변지역의 편입배제를 요구하고, 충남도는 도관하의 도·농복합특례시를, 충북도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를 희망



▲ 지난 6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문규 충남도의회위원장을 비롯해 주재발표자, 토론자, 연기·공주시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를 가졌다.

하는 등 4분 5열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사와 여론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관할구역을 설정할 경우 지자체간·지역간·주민상호간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킬 것이므로 배제할 지역은 배제하고, 편입할 지역은 편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할구역 설정이 필요함.

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로 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하는데 반대하며, 충청남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도·농복합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화 할 것을 요구함.

●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천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관할 구역내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 만을 두는 것은 주민 자치체증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도·농복합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하고, 충청남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7. 만약, 참여정부의 성급한 성과 과시를 위한 정치적 의도의 조기 입법시도라면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함.

● 참여정부가 성급하게 성과과시를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입법화를 서두르는 것이라면,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정서에 반하는 조기입법화 방침을 철회하고, 현시점에서는 오로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만 전념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함.

8.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시기를 2009년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계획에 의하면 입법 완료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잡고 있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도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로 하는 조항을 부칙에 담고 있는 등 조기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명문화하고 있는 바, 입법화의 시기를 충청남도가 건의하는 내용대로 2009년경에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는 것이 충청남도 의회의 견해를 천명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견의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개회사 (요약)

| 제204회 임시회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하나인 장항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열망을 가슴으로 체감하고 전달하였으며 도민의 애환을 함께 하는 민생위주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6일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도의 최대현안인 장항산업단지조성과 국방관련시설 이전, 도청신도시건설사업 지원에 한 목소리로 지원을 건의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충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예방 등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이 훼손되는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월 2일

| 제205회 임시회 |

최근 우리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민들의 반대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참사 사건이 우리 교민 2세에 의해 발생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러시아 아무르주의회 대표단 일행이 지난주 도의회와 농업기술원, 서산과 태안에 있는 기업체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 지역마다 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게 된 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살림살이의 면면을 보다 알뜰하게 보살피 주시고 도정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의장 김문규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 제206회 임시회 |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표되면서 충남도 산하 도·농복합특례시 건설에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면서 중앙정부에 도 산하 자치단체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학계 및 언론계 등과 연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이번 긴급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입법예고한 정부안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 충남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와 연기·공주 주민을 물론 전 도민이 도·농복합특례시 건설을 위한 정당한 논리와 주장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더욱 합심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조기 원안착공만이 갈라진 지역여론의 분열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도민의 뜻을 모은 건의안과 의회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07년 6월 5일

5분 발언 | 제204회~제206회 임시회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종현**(당진2,한나라)의원은 “정부는 한·미 FTA 체결 후 위축되는 농축수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소득보전을 위한 재원이나 지급기준, 피해규모와 대상품목 등에 대한 분석은 제시하지 않은 채 화난 농민들에게 사탕발림식 대책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한·미 FTA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농업의 암담한 현실이 염려된다며 도차원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황화성**(비례,한나라)의원은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개인차 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운동 기능적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는 특수체육을 전공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 구성시에 서류심사와 면접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이선자**(비례,한나라)의원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교육열, 과중한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 빛과 가족 해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교육체제 확립을 통해 학생들의 조기 유학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학생 인성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은둔형 외톨이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실태 파악은 물론 철저한 지도 및 치유가 함께 이루어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표근**(부여1,국민중심)의원은 “충남도의 대 중국시장 진출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대 중국담당 전문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영입을 통해 현지 시장조사 및 분석, 시장침투 및 진출 전략의 수립, 지원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실행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글로벌 마인드와 자질, 글로벌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확대하고 인적자원 역량개발 계획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

▶ **송덕빈**(논산,국민중심)의원은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해 온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채, 새로운 아이템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논산 황산벌 가운데 계백장군의 최후 격전지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기념할 수 있는 상징물과 계백장군의 일생을 담은 역사드라마를 제작, 옛 백제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백제인의 혼을 찾아 국가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개발하여야 하는 등 황산벌을 역사적 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즐 것”을 제안했다.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유환준**(연기1,국민중심)의원은 “입법에 고안안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공

청회도 한번 열지 않아 입법의 기본상 식조차 무시한 터무니없는 법으로 이렇게 연기군민들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입법을 하려는 정부를 대선과 총선에서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충남도와 연기군이 한마음으로 뭉쳐도 어려운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으니 도지사께서는 지역여론과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

▶ **이창배**(서산,한나라)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 지난 96년부터 법적지위 설정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질문했지만 걱정말라는 말만 늘어놓다가 오늘에 와서야 소원과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으니 심히 유감스럽고 누가 이 문제에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제 우리에게선 떨어진 불뚱이니 행정자치부는 물론 국회 행정위 및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도민과 의원, 공무원들이 함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장항국가산업단지 즉시 착공 건의서(요지)



▲ 지난 4월 30일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욱 위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장항산업단지 사업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1989년도에 장항과 군산은 국가 산업단지로 동시에 지정되었으나 18년이 흐른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482만평이 완공되어 2년 후인 2008년에는 100%의 분양이 예상되는 군산산업단지와 비교해 볼 때에,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장항산업단지 예정지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새도 조개도 살지 않는 버려진 깃털'로 남은 채 황량한 바닷바람만 불고 있다.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행정을 한다 면, 장항산업단지를 위해 기 투자된 어업권 보상비 등 3,200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명확한 자료

등을 공개한 후에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공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정부의 결정은 아니라고 사료되어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간곡히 건의하니, 장항산업단지 즉시 착공되어 허탈감과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충남도민과 서천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 주시기를 건의함.

첫째 : 정부정책의 일관성 · 형평성 ·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즉시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정 · 통합할 위치에 있는 대통령 ·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원안의 조기 착공만이 최선의 길임을 거듭 천명 합니다.

2007. 6. 5.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도청이전 예정지 현장방문



▲ 지난 4월 9일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 위원들이 도청이전 예정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 4월 9일 도청이전 예정지(홍성, 홍북면, 예산 삼교읍)를 방문하고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의견 수렴 등 현장방문 활동을 벌였다.

이번 방문은 금년도가 도청이전사업의 건설계획 수립단계로 예정지구 지정, 보상계획 및 주민지원 대책 등이 추진되는 2차년도로써 이에 지역 주민의 생생한 의견수렴과 발전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도민의 축하 속에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이날 오배근 위원장은 “현재 도청이

전사업은 구역지정 및 도시개발 기본구상, 주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나 도청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섬세한 대책도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과 홍성군, 예산군 주민·단체 대표는 원도심 위축에 관한 사항, 보상협의회 구성일정, 유관기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5월 1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청이전 사업을 행정도시건설에 버금가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공적 도청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결과

제205회 임시회 중 5월 11일부터 3일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배(서산1,한나라)의원, 부위원장에 홍성현(천안1,한나라)의원을 선임했다. 이창배 위원장을 비롯한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충남도 및 도교육청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장 홍성현(천안1,한나라)의원, 이선자(비례,한나라)의원, 박정희(비례,국민중심)의원, 오배근(홍성1,한나라)의원, 김석곤(금산1,국민중심)의원 등 7명을 선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2007년도 제1회

충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총예산 규모 3조 4,16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가 늘어난 2,364억 8,8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복지농도원 교육시설보장 사업비 1억원, 예산사과 홍보 조형물 설치지원비 3,000만원, 도청이전 소재지 도시건설 상하수도 정비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으며 공유수면매립지 해양환경 영향조사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총 12개 기금 3,626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5,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교육부문에선 기정예산액보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배 위원들이 지난 5월 7일 도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1,756억 2,000만원을 증액한 총예산규모 1조 8,919억 800만원을 의결했고, 교육부 파견 공무원 체재비

1,243만원과 농어촌 중등 거점학교육성지원 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평) 위원들이 4월 30일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평)는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06회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 및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2007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예산2, 한나라)의원은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취지가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지역 학생 외국어 능력 함양인데 선정기준에 있어 사업취지에 맞는 기준과 선정마련 요구



최희환(청양2, 한나라)의원은 ▶도에서는 현재 인터넷이 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청양군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청양군 요구사항에 대한 도의 지원 계획 및 대책은?



박공규(공주2, 국민중심)의원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군별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추경예산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시 계상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박찬중(금산2, 무소속)의원은 ▶4월 25일 금산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으로서 앞으로 행자위에서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들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



백낙구(보령2, 한나라)의원은 ▶지방채 100억원을 차입하면서 백제문화제 통합 개최를 위해 20억원을 포함, 소모성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빛을 내서까지 편성해야 하는지? ▶교육비재정교부금 범위내에서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도 가능할텐데 별도로 계상한 이유는?



송선규(서천1, 한나라)의원은 ▶개정 조례안에 공무원교육원의 시설 사용료를 최고 50%까지 인상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인상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새마을운동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재 새마을운동의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유익환(태안1, 국민중심)의원은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2억 5천만원과 총액인건비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도 장애인 체육회사무국장 선임과 관련하여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선자(비례, 한나라)의원은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백제문화제 공주·부여 통합 개최가 여건조성 등 준비가 미흡한 실정인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정종학(천안4, 한나라)의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사용료 인상으로 감면 범위 축소보다 시설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청양대학에 대한 도비지원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황우성(연기2, 열린우리)의원은 ▶문화재단관 제작, 백제문화사대계 편찬 등을 추진함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회의서류 및 경인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 삭감했는데 추경예산안에 2억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차성남(서산2, 국민중심)의원은 ▶지역교육청은 교육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학교도서관 및 학교 과학실 현대화 개선예산의 금년도 계획과 향후계획은?



김성중(계룡1, 한나라)의원은 ▶논산교육청의 논산·계룡교육청으로의 명칭변경 추진 상황은? ▶대한노인회 충남지부 노인단체장 해외연수 기회를 전 복지환경국장께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있는지?



박정희(비례, 국민중심)의원은 ▶참전용사기념탑 건립 사업비로 5,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건립되는지? ▶저출산이 현대와 미래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도의 경우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송영철(논산2, 국민중심)의원은 ▶각 지역 교육행정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쇄신할 방안은? ▶40~50대 남성들이 가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데 바람직한 아버지상 정립을 위한 교양프로그램 계획은 있는지?



이기철(아산1, 한나라)의원은 ▶아산시의 졸업생 중 매년 3,000여명에 가까운 졸업생들이 타지역으로 진학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백제문화권개발에 따른 우리 지역 방문 관광객들에게 충남의 대표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명례(비례, 열린우리)의원은 ▶아산교육청의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을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느 과목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장묘행정 개선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5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홍성현(천안1, 한나라)의원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 시설이 5개 사업인데 어디이며 노인생활시설 보강사업의 3곳은 어디인지? ▶여성정책토론회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황화성(비례, 한나라)의원은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인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가들의 4대 보험료와 이용시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은? ▶우리도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역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복지정책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부여1,국민중심)의원은

▶한·미FTA체결로 농민의 시름이 큰 상황인데 딸기시험장에서는 매항 등 지금보다 더욱 좋은 품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제1회 추경안 등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당부



강철민(태안2,한나라)의원은

▶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의 보급률이 단지 18%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급 확대 방안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3억원 증액 계상했는데 참여범위와 부담비율,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강태봉(아산2,한나라)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가 7천 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도내 국가관리 방조제는 몇 개 지구이며 금번 보수되는 5지구의

시급히 보수를 요구하는 지구는 없는지?



송덕빈(논산1,국민중심)의원은

▶딸기 품종에 있어 재배생산규모가 서로 다른데 이는 재배기술의 문제인지? ▶농어업용 유류에 대해 현행 면세제도가 유지되어 다행이나 5년이 지난 후 면세유 지원

중단시 이에 대한 대책은?



송민구(공주1,국민중심)의원은

▶한·미FTA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한·미FTA체결 이후 원산지 표시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도에서도 확실한 원산지

표시로 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오배근(홍성1,한나라)의원은

▶홍성지역은 딸기재배단지에 비해 작목반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를 확대하고 딸기시험장과 긴밀한 업무협조 당부 ▶국외여비 비목을 보면 도청이전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오세옥(서천2,국민중심)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대책을 효과적으로 대처기 위해서는 통제소 설치가 중요한데 도차원의 지원 방안과 대책은? ▶딸기 재배·수확 후 판매처는 어느 곳이며 품종 보급

확산에 대한 세부방안은 무엇인지?



이정우(청양1,국민중심)의원은

▶딸기 수확기에 칼슘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체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은? ▶태양직접단지 조성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5천 4백만원 전액을 출연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종현(당진2,한나라)의원은

▶한·미 FTA협상체결로 인하여 딸기 농가에 있어서도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피해에 대한 대책은? ▶향토산업육성 용역비가 본예산 3천만원 대비 100%증가한

규모인데 급증한 사유가 무엇인지?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홍성2,한나라)의원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는 예산이 도민의 혈세임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주문 ▶도청이전 신도시에 축산업 종사자가 많은데 환경문제로 축산업에 제한을 받을 경우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조치연(계룡2,한나라)의원은

▶204회 임시회시 제안한 사항으로 위험도로개설사업 이전에 커브 구간 등을 조사하라 했는데 실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까지 그동안 중앙정부에 어떤 대안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김동일(보령1,국민중심)의원은

▶특별회계의 상하수도 용역비를 통합하지 않고 구분하여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종시 관련, 자치단체별로 의견이 틀린데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개발하여 자치

단체의 통할권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김석곤(금산1,국민중심)의원은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목적, 연수국가, 인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 ▶시외버스 재정지원 민간보조금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 후 경영

서비스 개선이 되고 있는지?



김홍장(당진1,열린우리)의원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지위 문제를 우리 충남도가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

하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유병기(부여2,한나라)의원은

▶작년대비 화재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 이유가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실국장 CEO책임과 예산편성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지?



유환준(연기1,국민중심)의원은

▶국비보조사업에 약 20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백제권관리사업 160억원, 운수사업체관련 37억 여원이 증액되었는데 특정사업에 증액 편성한 것은 합당한 것인지?

▶그동안 도는 건설청이나 토지공사 등에 협조만 했지 우리 주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창배(서산1,한나라)의원은

▶소방청사 시설 설치 보완내역이 어떻게 되며 소방학교 절개지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운영에 15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고충부

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줄 것을 주문



정순평(천안2,한나라)의원은

▶행복도시 행복아파트 건축 추진에 문제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진행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데 충청남도를 비롯한 기초자치

단체에 반드시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들로 무엇이 있는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제204회 임시회)



이명례 의원(교육사회위원회,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한·미 FTA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앞으로 농어민에 대한 단기·장기적인 대책은?

답변 가장 피해를 보게 될 농어업의 소득보전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지원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도차원에서는 농어업인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유통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꾀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폐업 지원금의 지급 대상 품목 확대시 우리도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수수·매실 등 대체작목 전환 및 과채류 생산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축산부문의 품질고급화·차별화로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고 과일·김치·화훼 등 수출 유망 작목의 대규모화로 대미 수출의 호기로 삼겠습니다.

유환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연기1, 국민중심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이 쉬워 보급률이 높은 반면 개인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어 보급률이 낮은 실정인데 개인주택 및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농촌지역은 수요처가 적고 넓은 면적에 걸쳐 산재되어 관로설치를 통하여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 추진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의 부실화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자칫 유류보다 비싼 요금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사업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범사업 추진은 소외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함

이기철 의원(교육사회위원회, 아산1, 한나라당)

천안·공주의료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안하면서 천안 및 공주 이외의 지역으로 현 의료원을 이전, 소외계층 및 원거리 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견해는?

답변 우리 도는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고령화에 따른 농어촌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무료시술사업을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시설노후와 공간 협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공주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특성화 사업 확대방안, 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전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함

조치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계룡2, 한나라당)

세계군평화축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상군 페스티벌」 등의 기존행사 활성화 계획은?

답변 세계군평화축제는 행사의 성격과 규모·내용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이 당연하다 할 것이지만 개최지 입장에서 경험과 노하우 축적 등 역량 증대와 행사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와 계룡시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군행사인 「지상군 페스티벌, Defense Asia」와 함께 사전 행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면서 국가사업 결정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함

홍표근 의원(농수산경제위원회, 부여1, 국민중심당)

외자유치 확대 및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및 폐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답변 지난해 우리도의 외자유치는 13억 7천만불로 제조업 분야에서 전국 1위의 성과에 이어, 금년도 목표한 “외자 12억불, 국내기업 450개” 유치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유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폐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조성, 공장설립 등 대부분 규제 사항이 중앙의 법령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하지만 우리도의 외자 및 기업유치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先지정 제도 도입’, ‘권역별 산업단지 개발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기업 지원 전담 T/F팀 운영’ 등 다양한 기업 환경조성과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송덕빈 의원(농수산경제위원회, 논산1, 국민중심당)

농촌지하수 수위 저하에 따라 상류지역에 소류지 및 보 설치에 대한 견해와 공공기관 또는 학교건물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는?

답변 농촌지역의 부족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올해 264억원을 투입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소류지, 취입보 등 농촌용수 개발사업 또한 적극 추진하여 농업용수 부족에 대처, 걱정하신 논산 양촌 지역은 한국농촌공사(전주·완주지사)가 상류지역에서 현재 시행중인 장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부족한 지하수량에 도움이 될 것임. 또한 앞으로 공공시설과 학교 등 신축시 관련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의 추진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청사 설계시 빗물 이용시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옥 의원(농수산경제위원회, 서천2, 국민중심당)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등 도정 주요현안의 해결방안은?

답변 우리 도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수단을 동원 대응할 계획임. 먼저 국회의원, 도의원, 범도민 비상대책협의회, 정책자문교수단 등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확정짓고자 하며 확정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최종 건의할 계획이고 만약 건의 후 결과가 없거나 우리도 요구사항 거부 시에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의 최종 입장 및 대응방안을 결정짓고 도와 시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 행정+지역의원+사회단체 등 역할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

이창배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서산1, 한나라당)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지방공단에 차량의 출입이 잦아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입체 교차로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지금까지는 국도 29호선 고속통행에 불편을 끼쳐왔으나 앞으로 국도 29호선에서의 접근도 완충녹지지역을 활용 가·감속차선을 마련, 진입 하도록 지도하여 통행불편을 예방하고 단지 완공시점에서는 폐쇄하여 인도와 녹지로 조성할 예정임. 또한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금년도에 국도 29호선과 산업단지 경계부분에 인도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내에 설계, 7월 중 발주할 계획임. 아울러 입체교차로 설치하는 국도 29호선에서의 입체교차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있을 충청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단지 지정변경 승인시 이를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러시아 아무르주의회 대표단 도의회 방문(2007. 4. 23)



▲ 도내 8개시·군 중학교 학생회장들이 본회의장 방청(2007. 5. 10)



▲ 충청남도과 경상북도가 도청이전의 성공추진을 위한 MOU체결(2007. 4. 12)



▲ 중앙정부 한·미FTA체결지원본부가 주최한 협상타결설명회 참석(2007. 4. 10)



▲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2007. 5. 10)



▲ 충청권 공동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2007. 5. 9)



▲ 도·시군의회 입법공무원 합동연찬회(2007. 6. 4)



▲ 예산군 덕산면 소재 한국고건축박물관 현장방문 (2007. 4. 9)



▲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2007. 5. 1)



▲ 논산열기시험장 현장방문(2007. 4. 5)



▲ 건설소방위원회와 충남지역건설관련 회장단 간담회 (2007. 5. 10)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204회 임시회

◆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 처리일자 : 2007. 4. 10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제정이유
 -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재정력 역지수를 추가함으로써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에 명시된 상위 “법령조항” 개정
※2005.8.4. 지방재정법 개정(개정법·재정4법으로 분법)
 - 도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재정력 역지수 추가
 - 도세의 재정보전금 자원 중 공동시설세만 제외 하였던 것을 지방교육세도 제외

◆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자 : 충청남도교육감
- 소관상임위 : 교육사회위원회
- 처리일자 : 2007. 4. 10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 공고 방법과 회의에 참관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교육인적자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수요자 중심의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음
- 주요내용
 - 회의개최 홍보방법 및 참관자 확대
 -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안자 : 충청남도지사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 처리일자 : 2007. 4. 10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개정이유

-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지난 2001년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축소함
 - 면제대상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제외
 - 50% 감면기관 중 기초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 제외
- 시설사용료 기준을 일부 조정함

제205회 임시회

◆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유익환 의원 외 11인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 처리일자 : 2007. 5. 10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안이유
 - 충남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여
 - 도민들이 애도와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함께 장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민장 대상은 충청남도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 또는 국내·외에서 도를 빛낸 자로 명시
 - 대상자 결정은 도의 실장·국장 또는 본부장이나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정조정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된 도민장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 도민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식의 방법,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과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

◆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 김기영 의원의 12인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 처리일자 : 2007. 5. 10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안이유
 -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함
 -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함
 -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새마을 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함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홍표근 의원의 10인
- 소관상임위 : 농수산경제위원회
- 처리일자 : 2007. 5. 10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제정이유
 -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업인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주요내용
 -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입지지원, 기업 애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장마철 식중독 예방...

“기본은 올바른 손씻기”

장마철 식중독 예방요령

- 모든 음식물을 익혀 먹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생식할 경우 수돗물로 철저히 세척하여 섭취할 것
- 침수되었거나 의심되는 채소류나 음식물은 반드시 폐기할 것
-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도 주의하고, 유통기한 및 상태를 꼭 확인할 것
- 행주, 도마, 식기 등은 매번 끓는 물 또는 가정용 소독제로 살균할 것
- 곰팡이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싱크대, 식기건조대, 가스레인지 등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할 것
-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을 것
- 실외에 있는 된장, 고추장 독에 비가 새어 들지 않도록 할 것
-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을 것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중요한 식중독 예방

사람의 손에는 병원균을 포함해 많은 균이 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손씻기는 가장 중요한 식중독 예방 대책 중 하나이다.

올바른 손씻기를 위해서는

반지와 손목시계를 뺀다 → 비누를 사용해 충분히 거품을 일게 한다 → 손가락 사이, 손끝까지 씻는다 → 손바닥끼리 마찰하고 다른 손으로 손등을 문지르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편의 손도 실시한다 → 손톱을 사용해 손톱 안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 청결한 수건이나 페이퍼 타올로 물기를 닦아 낸다

순서로 꼼꼼히 씻어야 한다.



이럴 때 반드시 손을 씻는다

- 흡연 또는 화장실을 이용한 후
- 코를 풀거나 재채기한 후
- 애완동물을 만지고 난 후
- 쓰레기 등 오물을 만진 후
- 외출에서 돌아왔거나 조리하기 전
- 식재료를 다듬거나 세척 작업 후
- 귀, 입, 코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후
-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만진 후
- 아픈 사람을 간병하거나 상처를 만진 후
- 오래된 책과 돈을 만진 후

